

“젓 뽕 아이같이”

시편 131편 1-3절

이영길 목사

일본에 ‘아케보노’라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과자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은 회사의 로고를 바꾸고 싶어했습니다. 로고를 바꾸면 훨씬 사업이 잘 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회사원들에게 공모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 회사원들이 그려 왔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장의 친필 로고가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 회사 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서도를 즐겨오던 차라 사장인 우에쿠사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방에 앉아 종이를 펼치고 먹을 갈고 ‘아케보노’를 한자로 일어로 영어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표기를 바꿔 가며 써 보았습니다. 먹의 농도를 바꿔 보고 글자의 간격을 바꿔 보고 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처음엔 넘치는 의욕으로 좋은 로고를 써 보겠다는 일념으로 정좌하고 명상을 해 가며 온 힘을 붓끝에 쏟았습니다. 회사의 얼굴인 로고가 자신의 글씨로 쓰여 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퍼져 가는 것을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자 붓을 잡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정좌하고 먹을 갈긴 했지만 결국 붓을 들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놓고 종이를 펼쳐 둔 채 방문은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쁜 회사일로 로고 쓰는 일도 잠시 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이블에 펼쳐져 있는 종이 위에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아케보노’라는 글씨가 먹으로 까맣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방문 앞에 서서, 그는 빨려 들 것 같은 그 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몽클몽클 따듯한 무언가가 온몸으로 번져 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물을 글썽이는 자신의 모습에 그는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아케보노’라는 글씨는 바로 회사 창업 이래 전하려 애써 온 정신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에쿠사 씨는 그 순간 이것을 로고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두터운 갈색 간지에 희망을 나타내는 녹색으로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의 저자는 누구였을까요?

우에쿠사씨의 자녀 토모짱이었습니다. 토모짱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아빠가 쓴 글을 흉내 내어 무심코 쓴 글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뿐이었던 점포가 일본 전국에 101군데로 불어났습니다. 젓 뽕 아이가 놀라운 일을 해 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

보스톤 한인교회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

- *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 * 세계를 향한 교회
- *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 *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예배(1부)	Korean Service (1)	오전 8:45분
(2부)	Korean Service (2)	오후 12시
유년.초등부예배	Children Service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예배	Youth Group Service	오전 11시

교회학교 성경공부 및 모임 (Church Bible Study & Meeting)

소그룹 성경공부	Small Group Bible Class	오전 10:30 / 10:50(주일)
강의식 성경공부	Bible Study Class	오전 10:50(주일)
세례 교육반	Baptism Class	오전 10:30(주일)
수요여성성경공부	Ladies Bible Class	오전 10:30(수)
토요아침기도회	Morning Prayer Meeting	오전 8:00(토)
청년 1부	Young Adult I Bible Class	오후 6:30(금)
	Young Adult I Group Meeting	오후 1:30(주일)
청년 2부	Young Adult II Bible Class	오후 7:00(금)
	Young Adult II Group Meeting	오후 1:30(주일)
부부청년부	Young Married Couple Group	오후 1:30(주일)
	YMCG Bible Class	오후 2:00(토)

교역자 (Church Ministerial Staff)

담임 목사:	이영길 (Young Ghil Lee) 목사	(781) 467-0002
행정부목사:	윤경문 (Kyungmoon Yoon) 목사	(617) 359-3002
유년/초등부:	김수영 (Su Young Kim) 전도사	(213) 215-8562
중/고등부:	김수재 (Daniel Kim) 전도사	(404) 514-3303
청년 1부:	이요한 (Yohan Rhee) 목사	(617) 777-2370
청년 2부:	윤경문 (Kyungmoon Yoon) 목사	(617) 359-3002
부부청년부:	김건철 (Gun-Cheol Kim) 목사	(347) 551-4152

찬양대 (Choir)

지휘자 (Director): 박진욱 집사
반주자 (Organist): 안지혜 교수(1부) 김상영 교수(2부)

보스톤 한국학교 (The Boston Korean School)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30

교장: 강상철 장로 (978) 509-8708 교감: 이승연 집사 (617) 277-2002
교회 Sexton: Mr. John Whitcomb (617) 980-6068